

## ‘자동차 100만대’ 예타 통과 기대감

〈에비타당성조사〉

KDI 오늘 발표... 광주시 “사업비 축소 우려 있지만 통과 낙관”

노사민정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투자유치에 속도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시활을 끌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및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자동차 100만대)의 핵심 관문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결과가 8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에 이날 오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예타 통과를 판가름할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등에서 흡족한 결과를 기대하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C,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계층적 분석 결과(AHP) 결과가 0.5점을 넘으면 예타 통과 안정권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심이 되는 B/C는 1을 기준으로 하되 근소하게 못 미치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점검회의 당시 B/C는 0.85로 통상적인 통과 기준인 1에는 못 미쳤지만 ‘나제점’으로 볼 수 없는 수치였는데다가 이후 기재부가 요구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 등을 충실히 보완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적정임금으로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당시 예타 보완 수정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모

델이 갖는 정성적 부분을 최대한 보완했고,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규모를 재구성했다.

광주시는 예타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반

영된 국비 30억원과 시비 18억원 등으로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100만대 사업’이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수지에 매몰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명도 현실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주요 부분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출

범시키는 등 일자리 모델 정립,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관계 파트너십 형성 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따라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예타 통과와 함께 그동안 실체가 없고, 추상적이라고 지적되어온 ‘광주형 일자리’ 모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면으로 계속〉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서... 관방제림 피서 광주의 낮 기온이 섭씨 34.2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와 전남 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일 담양군 담양읍 관방제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싱그러움에 드리워진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남도문예 르네상스’ 33개 사업 930억 투입

전남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민선 6기 전남도가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내놓은 ‘남도문예 르네상스’가 본격화된다.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비둘기박물관 및 이창준 문화관 건립 등 33개 사업에 모두 93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7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과 각계 분야별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문예 르네상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남의 비교우위 핵심자원으로 서화, 전통정원, 바둑, 종가문화, 음식, 문학 등 12개를 선정했다. 이를 융복합화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 기반조성 7개 ▲콘텐츠 개발 5개 ▲향유기회 제공 7개 ▲에듀테인먼트 6개 ▲산업적 부가가치 극대화 8개, 5대 추진과제 33개 단위사업이 제시됐다.

재원은 국비 312억원, 지방비 566억원, 민자 53억원 등 93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가운데 전남 국제수목화 비엔날레 사업비는 40억원, 관람객은 25만4000명, 수익은 입장료 17억5000만원을 포함해 21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비엔날레 개최를 위해 오는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고 2017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받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전남 문화예술종합정보센터 설립(16억원) ▲바둑박물관 건립(100억원) ▲이창준 문화관 건립(95억원) ▲남도서화역사관 건립(200억원) ▲전남 국제음식학교 설립(100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에 대해 해당 실과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을 선정,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최종 추진계획을 오는 25일 발표할 계획이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롯데마트서 130억 환수

월드컵점 불법전대 혐의 마무리

롯데마트 “시민께 심려겨쳐 사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불법전대(轉貸·재임대)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김영남(더민주·서구 3) 광주시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촉발된 뒤 시의 전면적인 감사, 롯데와의 협상 등을 거쳐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부당 수익에 따른 환수금은 계약 만료 기간인 2026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총 110억원이며 지역사회 환원금 형태로 20억원이 추가됐다.

윤장현 시장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가 7일 시청에서 만나 부당수익 환수 등에 대해 합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단전대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입점 업체와 종사자의 직간접 피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광주시와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

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재임대 구역을 벗어난 무단전대 등으로 지금까지 19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가납부액 등 105억원을 제외한 87억원을 부당 수익금으로 보고 여기에 지역 환원금 42억원을 더해 130억원 환수키로 롯데 측과 최종 합의했다.

롯데마트 측은 무단 재임대 매장 전체 4259㎡ 중 67% 정도를 원상회복했으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롯데와의 계약해지 불가는 행정부의 유권해석도 한몫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시 질의에 대해 ‘양자 간 협의로 맺어진 대부분계약인 만큼 사회질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상태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20년 장기 임대대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상 재임대가 면적은 9289㎡지만 이보다 4000여㎡를 초과 재임대해 연간 7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려 환수 여론이 일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기의 지역대학-제약할 하려면 ▶6면



新팔도유람-강원 해변으로 가요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태풍 ‘네파탁’ 폭우 몰고 올라온다

11~13일 많은 비 내릴 듯

11~13일 광주·전남지역은 제1호 태풍 ‘네파탁’(NEPARTAK)의 간접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네파탁이 9일 중국 남동부지역으로 상륙한 뒤 북상하다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지만 12일 서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태풍의 북상으로 11일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고, 12~13일에

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네파탁은 7일 오후 3시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km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00hPa, 중심 최대풍속 초속 59m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다.

한편 주말과 휴일인 9~10일 광주·전남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